

# 광주 CCTV관제센터 ‘안전 지킴이’ 역할 특특

### 교통사고 응급환자 수송·재난재해 예방 활동 개소 1년만에 사건·사고 1000여건 해결 성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된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개소 1년 만에 1000여건의 사건·사고를 해결·예방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시민안전 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구 화정동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에 들어선 CCTV통합관제센터는 CCTV 2966대를 통합·운영해 교통사고 응급환자 수송, 주취자와 노숙자, 재난재해 신고 등 다양한 사건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경찰관 3명과 관제요원 90명이 24시간 교대로 CCTV를 지켜보고 있으며, 특히 주요 도로와 놀이터, 골목길 등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범죄 현상이 포착되면 112순찰차에 곧바로 연락해 범인을 현장 검거하는 등 ‘감시자’의 역할도 특특히 하고 있다. 또, 자살 등 시민 안전사고도 철저히 살펴 시민 생명 지킴이라는 애정까지 얻어냈다.

관제센터는 실제 최근 새벽 1시께 남구

의 한 공원에서 70대 노인이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장면을 CCTV로 확인, 관할 경찰이 긴급 구조해 생명을 살려내기도 했다.

관제센터의 활약 덕분에 개소 1년 만에 범죄 발생률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 1년(전년 5월대비) 만에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의 발생률이 5.6% 감소했다. 특히 살인은 43.3%, 강도는 35.2% 급감했다.

강력사건 범인 검거에도 성과를 보이면서 관제센터의 자원으로 성폭력 2건, 폭력 3건, 절도 67건, 기타 7건 등 79명의 범인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특히 CC-

TV 영상을 경찰 수사에 제공해 209건의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도 했다.

지난해 5월 관제센터 개소 이후 1년 동안 수사자료 제공 등 범인 검거 실적 288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 681건 등 969건에 이른다.

김진석 광주시 통합관제 담당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24시간 근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CCTV의 역기능인 시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예방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화정동 보건환경연구원 별관에 위치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사고 위험 지역의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아시아 인권·민주주의에 대한 창조적 대안 모색

### 5·18 34주년 ‘광주아시아 포럼’ 개최 역사왜곡바로잡기 등 3개 워크숍 진행

5·18민중항쟁 34주년을 맞아 아시아의 주요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오월정신을 계승할 국제 활동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18기념재단·광주트라우마센터·역사정의실천연대·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가

공동 주관한 ‘2014 광주아시아포럼’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5·18기념문화관 등에서 개최됐다.

올해 광주아시아포럼의 주제는 ‘민주주의 실현과 정의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책임’이며 3개의 워크숍(SDMA워크숍-아시아민주주의 워크숍, 국가폭력 트라우마

국제워크숍, 역사왜곡바로잡기 워크숍)으로 진행됐다.

광주아시아포럼은 매년 5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함께 토론해 창조적 대안을 공유하고 포럼을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의제를 다루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는 25개국에서 참석했다.

첫날에는 개막식이 이어 역사왜곡 바로잡기 워크숍과 동아시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연례회의 등이 열렸다.

둘째 날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정의와

회복을 위한 국가와 시민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제2회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회의에서는 ▲국가폭력·고문의 형태와 변화 탐색(주제발표) ▲아시아의 국가폭력·고문의 형태(주제발표) ▲오늘날 한국사회의 국가폭력(토론) ▲한국내 사법제도 및 행정제도도 양산하고 있는 국가폭력 실태(토론) ▲국가폭력·고문에 대한 시민의 책임(주제발표) ▲아르헨티나 국가폭력 피해자 및 공동체 정의 회복(주제발표) ▲부림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토론)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본 국가폭력(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기업·대학·공공기관 대상 ‘가족친화기업’ 신규 인증

### 7월말까지 신청자 접수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과 관련해 기업체, 대학,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가족친화기업인증 홈페이지(http://ffm.mogef.go.kr)에서 신청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1월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해 홍보 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정부사업(28개 기관 92개 사업) 참여 시 우대지원,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오는 27일 시청 세미나 1실에서 인증신청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2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획득, 광주지역에서는 2011년부터 광주은행 등 15개 기관이 인증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220명 선발

### 광주소방안전본부, 30일까지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30일까지 ‘2014년 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수난구조요원 88명과 수변안전요원 132명이며,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승선보통 6곳에서 수상안전 감시, 환자 응급처치, 안전순찰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맡게 된다.

지원 자격은 수난구조요원의 경우 수난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난구조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수난구조 관련 학과 대학생 등이며 수변 안전요원은 대학생, 대학원생, 의용소방대원, NGO 회원, 지역주민 등 만 18세 이상의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이면 누구

나 가능하다.

지원은 광주시 5개 소방서 구조·구급계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대원은 6월 중 기본 응급처치 요령,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된다.

지난해에는 임곡교 등 6곳에 시민수상구조대가 배치돼 인명구조 1명 안전조치 347건 등의 성과를 올리는 등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해냈다.

이천택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 소방령은 “매년 여름철이면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수상구조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각 구청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취약계층 대상 166명

광주시가 오는 26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총 166명으로, 구별로는 동구 34명·서구 34명·남구 28명·북구 40명·광산구 30명 등이다.

모집 분야는 ▲폐자원 재활용사업 ▲지역관광명소 활성화사업 ▲공원·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지역탐방로 조성 및 정비사업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등 45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순수기기에 참여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시민도 취업지원프로그램(고용

지원센터 등)을 이수하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각 구청별로 신청자의 재산, 가구소득 등 자격요건 등을 심의해 적격자를 선발하며,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근무로 월 73만원,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 근무로 월 45만원 인입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하반기 각 4개월씩 나눠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5개 자치구 48개 사업에 260명이 투입돼 추진 중이며, 하반기 사업은 6월까지 선별과정을 거쳐 7월7일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홈페이지(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시 일자리정책과(062-613-3792) 또는 각 구청 경제부서(일자리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본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성점**

유성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주스)

유·스퀘어점

족석요리  
얼리지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랑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